

한국경제학회 2012 정기총회 및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대통령 축하 메시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학문적 토대가 되어주고 계신 한국경제학회의 정기총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61년을 맞는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자들의 학문 교류의 장으로 우리 경제학 발전을 이끌어왔고,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현실에 토대한 정책대안 제시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 속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그 동안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서,
창의와 기술로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새로운 창조경제의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미증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경제학자 여러분께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큼니다.
우리 경제가 미래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해주시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한국경제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 본 원고는 2013년 2월 21일(목) ~ 22(금),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개최된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 전체회의 및 2012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대독된 박근혜 대통령 축하 메시지이며, 당시 원고 대독은 유 일호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하였습니다.